

구례군 수해복구에 3657억원 투입

공공 1176억·사유시설 120억 지급
재난구호·복구 부담기준따라 지원
추진상황 공개...공정·투명성 높여

구례군이 3657억원 규모의 섬진강 수해복구 지원 사업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한다. 25일 구례군에 따르면 군은 정부와 기관단체 지원금 3657억원을 투입해 사유시설 지원 및 공공시설 복구 작업을 진행한다. 구례지역은 지난해 8월 7일부터 이틀간 400mm 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섬진강과 서서천의 범람으로 가옥과 상가 등이 침수되고 180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또 1149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사상 유례없는 피해를 입었다. 그동안 응급복구를 통해 이재민 1149명을 구호하고 공공시설 292개소와 사유시설 1878개소를 복구했다. 이를 위해 골삭기 등 장비 2618대가 동원됐으며, 전국에서 공무원·소방·군인·경찰 등 1만5400명이 동원됐으며, 자원봉사자 1만1000여명도 함께 구슬땀을 흘렸다. 복구비는 총 3657억원이 확보돼 사유시설에 대한 지원금을 120억원 지급했다. 이 가운데 구례군이 직접 지원한 금액은 20억원이며, 재난지원금은 100억원이다. 이같은 수해주민 지원은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원됐다. 농축산 분야의 경우 7개 지원 기준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했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3536억원으로 도로 및 하천, 상수도시설 원상복구에 1176억원이 투입되고 지방하천 및 소하천, 배수펌프장 개선 복구에 2183억원 등이 투입될 예정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사상 유례없는 수해로 큰 고통을 겪었으나 전국의 기관단체, 자원봉사자가 손길을 보내와 이제 정상을 찾아가고 있다"며 "주민 피해보상이 최대화 되도록 노력하고 정부와 각급 기관·단체가 지원한 성금과 복구비를 소중하게 활용해 피해주민에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례군은 주택·상가·농축산시설·개발상수도에 대해서는 지원을 완료했으며, 도로·하천·배수펌프장 등 공공시설은 오는 2023년까지 복구를 완료할 계획이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구례군이 교육부 주관 '2020 미래교육지구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순천시·구례군, 미래교육지구 우수기관 선정

교육자치 민관협력체제 구축 호평

순천시와 구례군은 교육부 주관 '2020 미래교육지구 평가'에서 우수지구로 선정돼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25일 순천시와 구례군에 따르면 양 지자체는 교육부 공모사업인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사업을 위해 민·관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순천시는 민간을 중심으로 순천풀뿌리교육자치협력센터를 구축해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마을과 학교 교육협력 구조를 만들었다. 또 동천 등 지역의 생태를 특화한 지역과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등 협력체제 구축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역

교육력 회복 실천공동체 정담회를 통해 시민이 주체적으로 교육정책에 참여하는 민회를 활성화한 것은 전국 모범사례로 꼽혔다. 구례군은 미래교육지구 사업으로 군청과 교육지원청, 주민이 함께 협력하는 구례형 교육자치 모델인 '구례교육공동체'를 운영했다. 또 학교와 지역사회가 마을교육공동체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구례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지역이 당면한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례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티움)를 설치·운영했다. 순천시와 구례군은 이같은 성과로 올해에도 미래교육지구 공모사업에 선정돼 교육거버넌스 운동을 활발하게 펼친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사상 최악의 수해를 입은 구례군이 정부 및 기관·단체 지원금 3657억원을 투입해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지원 복구에 나선다. 지난해 8월 폭우에 이은 태풍 '장미'로 인해 비바람이 부는 가운데 구례5일시장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수해 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양시, 설계심사로 5년간 126억 절감

부실공사 방지에도 큰 성과

광양시가 지난 2004년부터 설계심사제도를 운영을 통해 부실공사 방지와 예산절감 등 큰 성과를 거뒀다. 25일 광양시에 따르면 시는 전남도 지방자치단체 중 설계심사제도를 가장 빨리 도입해 5년간 3274건 4511억원의 사업을 심사해 126억원을 절감했다. 행정안전부가 정한 설계심사 대상사업 기준은 3억원 이상 공사, 7000만원 이상 용역, 2000만원 이상 물품구매나, 광양시는 심사 대상을 3000만원 이상 공사, 2000만원 이상 용역, 1000만원 이상 물품구매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또 10억원 이상 대형사업은 해당분야 대학교수와 기술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건설품질심사위원회'에서 적절한 원가심사와 시설물 배치, 불

필요한 공정 등을 현장에 맞게 심사해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아울러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사업은 주로 공사비 3000만원 미만으로 설계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예산이 낭비되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전체사업 중 20% 내외의 표본사업을 추출해 설계심사를 진행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부실사공 사전 방지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설계 경험이 부족한 8급 이하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설계도서 작성(실습) 및 감사 주요 지적사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설계도서 작성에 필요한 지침, 적용기준 도서 등을 구입·배치해 직원 누구나 열람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자료실'을 2021년 1월부터 운영해 견실한 설계서 작성을 돕는 등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곡성군, 과수농가 한파피해 예상
전정 시기·비료량 조절 등 당부

곡성군이 최근 한파로 인해 과수 농가의 동해 피해가 예상돼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5일 곡성군에 따르면 곡성지역은 지난 8일 최저기온이 영하 19.4도까지 떨어지는 등 7일 동안 영하 10도가 유지됐다. 곡성군농업기술센터가 조사한 과수 한파 피해 예상률은 체리 20%, 단감 45%, 참다래 50% 정도로 파악됐다. 특히 고지대보다 저지대, 북풍받이 과원의 피해율이 높을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상황에서 수확량은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보이지만 봄 병해충과 여름철 태풍 피해까지 겹치면 수확량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곡성군 관계자는 "한파 피해를 받은 나무는 전정 시기를 늦추고 평년보다 결과지를 많이 남겨야 한다"며 "작과량이 적은 경우 비료 사용량을 줄이고 수관을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kwangju.co.kr

광양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보전 8억원 지원

광양시는 장기 불황으로 담보 능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2021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보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고, 지역 내 금융기관에서 최대 3000만원을 융자받은 소상공인에게 융자금 이자 3%를 광양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 신규 200여개소와 이미 대출받은 1000여 소상공인의 이자를 지원하며, 지원예산은 8억1000만원이다. 신청은 자금소진 시까지며 광양시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

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남신용보증재단 광양지점에 방문해 보증서 발급 가능 여부를 상담한 후, 시장 지역경제과에 신청서를 제출해 추천서를 발급받고, 시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으면 된다. 광양시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광주은행(동광양금융센터, 중마동지점, 광양지점), IBK기업은행(광양지점), NH농협은행(광양시지부, 동광양지점), 신한은행(광양금융센터), MG 광양시 새마을금고(본점), 하나은행(광양지점)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여수시, 보건소 주차장에 상시 선별진료소 신축

3억5000만원 들여 5월 준공

여수시는 보건소에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상시 선별진료소를 신축한다고 25일 밝혔다. 상시 선별진료소는 보건소 주차장 자리에 국비 1억7500만원 등 3억5000만원을 투입해 114㎡의 규모로 5월 준공될 예정이다. 감염병 의심환자와 일반 진료자의 동선을 분리해 검사하고 평소에는 결핵, 흉역 등 감염병 의심자 진료소로 활용할 계획이다.

검체채취실과 진료실, X-ray실, 탈의실, 대기실, 폐기물 처리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주리 여수시 보건소장은 "상시 선별진료소 설치로 의료진의 근무 여건과 시민의 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직원의 위기 상황 대처 역량을 강화하고 신종 감염병 종합 관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지난해 2월부터 이동식 컨테이너 형태의 간이 임시선별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